

종이 · 펄프 기술총회 6월6일 개최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종이, 판지 및 펄프 기술 총회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, 스웨덴, 영국, 중국, 일본 등 31개국에서 전세계 제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6-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.

서울 총회에서는 <종이 및 판지의 백색도 시험방법 관련 표준> 7종과 물리적 특성인 <가속 노화 시험방법 관련 표준> 17종 및 <펄프의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방법 관련 표준> 2종 등 20여종의 표준 제정 및 신규 제안된 다수의 표준이 논의될 전망이다.

또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<펄프, 종이 및 판지의 추출액에서 오염화석탄산의 측정방법 표준>, <미세골 골판지의 평면압축 강도 측정> 국제표준안이 새롭게 제안될 예정이다.

현재 국내 제지산업의 위상은 2006년 생산량기준 세계 8위, 국민경제상의 위치는 제조업 비중 생산량 0.84%, 고용비중 0.6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새롭게 제정된 표준을 통해 종이 및 판지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 국내에서 추진해 온 연구 결과를 국제규격에 접목시키고 국내 제지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8/06/05>